

아이를 잡아먹는 마귀할멈과 석류나무

글·신현배
시인·아동문학가

옛 날 히말라야 산기슭에 못된 마귀할멈이 살았습니다. 마귀할멈은 잔인하고 성질이 고약했습니다. 그래서 늘 어린아이만을 잡아먹었습니다.

마귀할멈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어느 마을에 가서 아이들을 잡아먹을까? 뽀뽀 마른 여자 아이보다 토실토실 살이 찐 남자 아이가 많은 마을이 어디 있지? 아이들을 잡아먹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걸.”

마귀할멈은 징그럽게 웃으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마귀할멈이 아이들을 잡아먹기 시작한 것은, 머리에 희끗희끗 흰 머리카락이 돌아나면서부터였습니다.

마귀할멈은 그 전에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어른들만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기운이 떨어지자, 어른들을 사냥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을 사냥하려고 덤벼들었다가는 기운이 딸려 오히려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사냥감을 어린아이로 바꾸었습니다. 아이들은 힘이 없고 약해서 손쉽게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귀할멈의 사냥 수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해가 서산마루에 걸리는 저녁 무렵이 되면 어슬렁어슬렁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마당에 용기종기 모여 앉아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지요. 아이들은 놀이에 푹 빠져 있어 누가 다가와도 전혀 눈치 채지 못합니다. 마귀할멈은 이 순간을 노려, 먼저 아이 하나를 그 자리에서 잡아먹습니다. 그리고는 술개가 병아리를 낚아채듯 다른 아이들을 붙잡아 동굴로 끌고 갑니다.

동굴에서 기다리는 것은 마귀할멈의 자식들입니다.

“애들아, 엄마 왔다.”

마귀할멈이 동굴에 도착해 이렇게 소리치면, 자식들은 동굴 밖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자식들은 무려 500명이나 됩니다.

“와아, 엄마가 맛있는 아이들을 잡아왔다!”

“빨리 먹자!”

마귀할멈의 자식들은 아이들에게 벌 떼같이 달려듭니다. 열 명의 아이를 잡아왔건만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엄마, 배고파. 또 아이를 잡아다 줘.”

“알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이들을 사냥하러 다시 또 마을로 향할 때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날이 저물어 버리면 아이들은 저녁밥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가야겠다. ……아이들아, 제발 내가 도착할 때까지 놀고 있어라.’

마귀할멈은 날듯이 가까운 마을로 달려갑니다. 놀이에 정신이 팔린 서너 명의 아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땡거리가 깔려도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마귀할멈은 이 아이들을 붙잡아, 배고픈 자식들이 기다리는 동굴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저녁, 마귀할멈은 그 날도 변함없이 아이들을 사냥하러 동굴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어느 날과 달랐습니다. 마을을 찾아갔지만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귀할멈은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아이들이 모두 일찍 집에 들어갔나?’

마귀할멈은 다른 마을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약속이나 한 듯이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참 이상하네. 왜 아이들이 없는 거지?’

몇 개 마을을 돌아보았지만 아이들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일 났네. 오늘은 허탕을 쳐서 자식들을 굶겨야 하잖아.’

마귀할멈은 배고프다고 보채는 자식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 수 없지 뭐. 오늘밤은 아이들을 달래어 일찍 재우고 아침부터 사냥에 나서야겠다.’

마귀할멈은 이런 생각을 하며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자식들은 마귀할멈이 나타나자 동굴 밖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왜 아이들을 안 잠아왔어?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는데.”

“배고프단 말이야. 아이를 잠아다 줘.”

자식들은 마귀할멈에게 배고프다고 칭얼거렸습니다.

마귀할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들아, 배고파도 참아라. 내일 아침 일찍 포동포동 살이 오른 낱자 아이들만 잠아다 줄게. 오늘밤은 일찍 자.”

마귀할멈은 자식들을 달래어 간신히 재웠습니다.

그런 다음 넓은 동굴 속에 나란히 누워 자는 자식들을 일일이 세기 시작했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자식이 있어, 세지 않으면 한둘이 없어져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백구십오, 사백구십육, 사백구십칠, 사백구십팔, 사백구십구..... 어, 어? 하나가 없네? 내가 잘못 세었나?”

마귀할멈은 다시 한 번 세어 보았습니다. 여전히 하나가 모자랐습니다.

“한 녀석이 없어졌어!”

마귀할멈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 갔지? 밖에서 안 들어왔나?”

마귀할멈은 울상이 되어 동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미친 듯이 찾아 헤맸습니다.

“오백아, 오백아! 어디 있니? 대답 좀 해라.”

마귀할멈은 자식이 500명이나 되지만, 모든 자식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들이었습니다.

마귀할멈은 눈에 불을 켜고 자식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백아, 도대체 어디 있니? 제발 내 앞에 나타나시오. 으앙으앙.....!”

잃어버린 자식을 끝내 찾지 못한 마귀할멈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 때, 마귀할멈 앞에 부처님이 나타났습니다.

“마귀할멈, 그대는 자식이 500명이나 있지 않은가. 그까짓 자식 하나 없어졌다고 야만법석할 것 없지 않나?”

마귀할멈은 부처님의 말에 발끈하여 성을 냈습니다.

“나는 소중한 자식을 잃었습니다. 자비하시다는 부처님이 내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말 한번 잘했다. 자기 자식 귀한 줄은 알면서, 낱의 자식들을 닥치는 대로 잠아먹어서야 되겠는가? 많은 자식 가운데 하나를 잃어도 그리 슬프거늘, 자식이 한두 명밖에 없는 부모들은 자식을 잃고 얼마나 슬프겠는가?”

마귀할멈은 부처님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굶어 죽을망정 다시는 아이들을 잠아먹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 대신 오백이를 찾아주시시오.”

마귀할멈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그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굶어 죽어서야 되겠느냐? 아이들을 잠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오늘부터는 이것을 먹어라.”

부처님은 마귀할멈에게 석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할멈에게 잃어버린 자식을 보내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얼마 전부터 마귀할멈 때문에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의 띠 끊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크지 않구나. 마귀할멈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부처님은 마귀할멈의 자식 하나를 일부러 갓추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알게 한 뒤, 아이를 잠아먹는 마귀할멈의 못된 버릇을 고친 것입니다.

그 뒤부터 마귀할멈은 아이 대신 석류를 먹으며, 아이들을 보호하는 신인 귀자모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귀자모신을 모신 사당 옆에는 귀자모신을 위해 석류나무를 심었다는군요. 이런 풍습이 널리 퍼져, 가정집에서도 정원에 석류나무를 심게 되었고요. 